

조선 후기의 문신, 김류 金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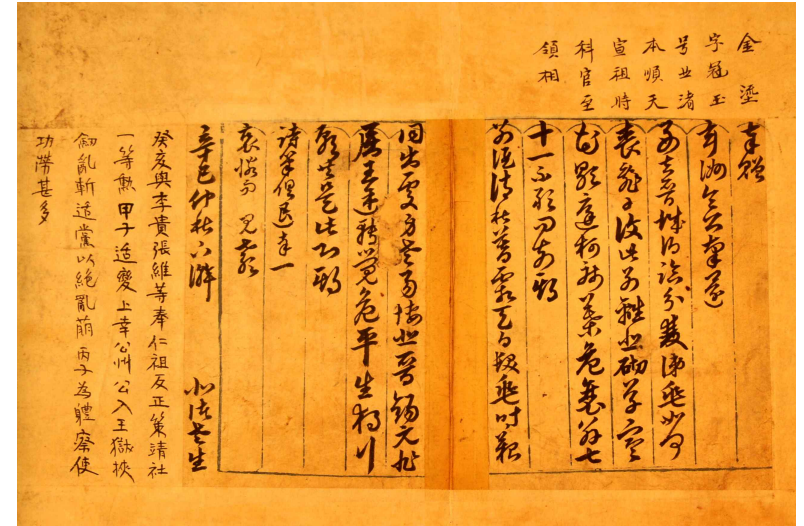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순천, 자는 관옥冠玉, 호는 북저北渚이다. 아버지 김여물金汝物, 1548~1592 이 임진왜란 때 충주 탄금대 전투에서 전사했으므로, 순절자의 아들로 참봉이 되었다. 1596년(선조 29) 정시문과에 급제한 후, 내외의 주요관직을 두루 거쳤다. 1623년(인조 원년)에는 이귀李貴·이괄李适 등과 함께 인조반정을 성공시켜 정사공신靖社功臣으로 책록策錄되고 병조참판에 제수除授되었다. 곧 이어 병조판서로 승진되고 대제학을 겸하면서 승평부원군昇平府院君에 봉해졌다. 이후 이괄의 난 1624 을 평정하는 한편, 청나라의 공격에 대비해 국방 강화를 꾀하기도 하였다. 서인의 영수領袖로서 영의정을 지냈으며, 문장과 글씨에도 뛰어났다.

1624년(인조 2)에는 가도假島에 있던 명나라 장수 모문룡毛文龍을 찾아가 그의 횡포를 막고, 명나라 사신의 반송사件送使가 되어 그들의 불만을 시문으로 회유해 존경을 받는 등 외교에도 일가견을 보였다. 저서로는 《북저집北渚集》이 전한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이 시는 김류金瑬가 1641년(인조 19) 현주 이소한李昭漢이 진주목사로 임명되어 임지任地로 떠날 때 송별하며 써 준 것이다. 그런데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1639년(인조 17) 6월 20일 기사에 ‘이소한을 진주목사로 삼는다.’ 는 내용이 보이고 있어 편지의 1641년(인조 19)과는 연도가 맞지 않다.

2015년 박물관 연중기획 - 이달의 문화재
11월의 문화재(11. 02 ~ 11. 30)

조선 후기의 문신, 김류 金瑬



최종병기 화살 箭·矢



奉贈玄洲令公南還		남쪽으로 돌아가는 현주玄洲* 영공께 드림
好去晉城伯	臨分雙涕垂	부임하러 가는 진주목사 이별하러니 두 줄기 눈물이 흐르네
如何喪亂日	復此別離悲	어찌하여 어지러운 날에 다시 이별의 슬픔을 겪는가
砌草寒花歇	庭柯病葉危	성돌의 풀과 국화가 시들고 뜨락 나무의 마른 잎도 다 쪼그라
衰翁七十一	不敢問前期	노쇠한 71세 늙은이는 감히 앞날의 기약을 묻지 못하네.
別酒清秋暮	霜天白髮垂	송별하는 술자리에 맑은 가을날이 저물고 차가운 가을 하늘이 백발처럼 드리웠네
時艱同出處	身老易懷悲	어려운 때 출처를 함께하여 몸이 늙으니 쉽게 슬퍼지네
晉錫元非屈	王途轉覺危	진주목사에 임명된 것이 굴욕이 아니니 더욱 위태로운 것을 임금이 알았기 때문이네
平生獨行願	共是此心期	평생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을** 이 마음도 함께하기로 기약하리라
詩筆俱退	幸一哀憐而見教	시와 글씨가 모두 졸렬하니 여여빠 여기고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辛巳 中秋 下瀚 北渚老生 1641년 8월 하순 북저 노생

* 현주는 이소한李昭漢, 1598-1645의 호이다.
** 《주역周易》 <이괘履卦> 초구初九에 “평소대로 행하여 가면 허물이 없으리라素履往 無咎” 하였는데, 그 상象에 “평소의 본분을 편안히 행하여 가는 것은 오로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素履之往 獨行願也” 라고 하였다.

총괄·기획 김원규, 강경연, 최해민
발행 경남대학교박물관

☎ 055-249-2924
<http://museum.kyungnam.ac.kr>

경남대학교박물관 특별전시실 (한마미래관 2층)

화살·箭·矢

인류는 생존을 위해 여러 가지 도구를 개발하여 이용하면서 제반 욕구를 충족시켜왔고 그 중에서도 생존과 번영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발달해 온 것이 활과 화살이라 할 수 있다. 실제 활과 화살은 원시사회에서 생존의 수단으로, 고대와 중세에 있어서는 뛰어난 전쟁무기로, 그리고 근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러서는 인류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스포츠 활동으로 인류 문화에 이바지하여온 유구한 역사적 산물이라 하겠다.

◆ 화살이란 무엇인가?



▶ 정의

화살은 나무를 이용한 가지에 화살촉을 붙여 제작하여 활이나 화약병기를 이용하여 적을 살상하는 발사물이다.

화살은 삼국시대부터 궁술을 주요시 여기는 풍습에 따라 도검·창과 함께 중요한 무기의 하나였다. 화살은 화약병기가 보급되었던 조선시대까지도 궁술과 더불어 중요하게 여겨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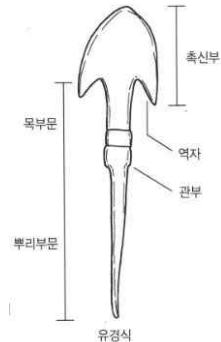
활쏘기, 《단원 풍속도첩》



화살은 한자로 전箭 또는 시矢라고 하였다. 화살은 화살대와 화살촉, 화살을 시위에 걸고 쏠 수 있도록 요형으로 만든 오닉括, 화살이 시위를 떠나서 날아갈 때 일정한 방향을 유지시키기 위한 깃翹으로 이루어져 있다.

※ 화살촉

화살촉은 원거리 공격용 무기인 화살의 일부로 적의 살상에 직접 작용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형태와 재질이 다양하다. 촉은 크게 촉신부鏃身部和 목부분頸部, 뿌리부분莖部으로 구성된다. 촉신부는 끝부분에서 목부분의 경계까지를 말하며 날이 서있다.



※ 재질별 종류



- ▶ 골촉骨鏃: 동물의 뼈·뿔·이빨을 이용하여 만든 화살촉
- ▶ 석촉石鏃: 돌로 만든 화살촉
- ▶ 청동촉靑銅鏃: 청동으로 만든 화살촉
- ▶ 철촉鐵鏃: 철로 만든 화살촉

▶ 제작

다량의 화살을 제작하려면 그 지방에서 흔하게 자생하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남쪽에서는 주로 바닷바람을 많이 쐬 대나무를, 북쪽에서는 자작나무나 버드나무 또는 싸리나무楮를 주재료로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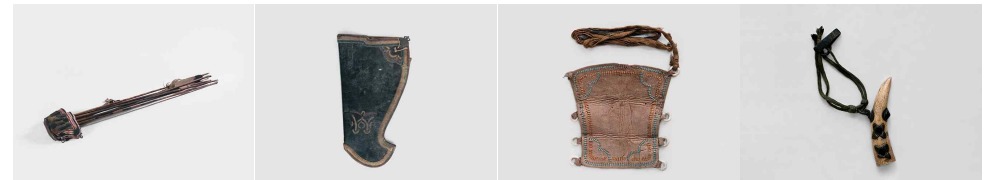


호시楮矢, <광대싸리로 만든 화살>



- ▶ 부레풀: 화살대를 만들 때 사용하는 접착제
- ▶ 소심줄: 소의 심줄을 돌려 감아 터짐을 방지
- ▶ 상사목: 화살을 보호하는 대나무관을 만들
- ▶ 복숭아나무껍질: 오닉을 나무껍질로 감싸 보호
- ▶ 꿩깃: 화살의 깃으로 사용

☞ 여러 가지 보조도구



- ▶ 시복矢服: 화살을 넣어 보관하는 주머니
- ▶ 궁대弓袋: 활을 넣어 보관하는 주머니
- ▶ 완대緩帶: 활을 쏠 때 소매 자락을 묶어 고정시키는 도구
- ▶ 촉돌이鏃機: 화살촉을 뽑거나 또는 박는데 사용하는 기구